사물, 맥락

CRAFT TREND FAIR 2019

Object, Objects...

BROCHURE

Object, Objects...

오브제, 오브제...

최주연 Choi Jooyeon
2019 공예트렌드페어 주제관 감독

2019 공예트렌드페어의 주제관 타이틀 오브제, 오브제(Object, Objects...)는 재료(Material) 중심으로 공예를 하나의 객체, 단독 사물이 아닌 장소에 놓인 맥락 속 관계의 존재로 보고자 함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과거 결정적 사고가 아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미래 지향적 사고는 우리가 재료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다.

재료는 작가의 철학을 반영하거나 작가가 의도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매체다. 재료에서 유추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은 무한하기에 기존의 관습적인 용도를 벗어나는 실험과 재료를 재인식하려는 시도는 감각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용도와 목적에 의해서 재료가 선택되기도 하지만, 재료가 영감의 원천이 되어 무엇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그 무엇은 스케일 혹은 사용 용도에 따라 작은 공예품(Object)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품는 건축(Object)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재료에서 유추될 수 있는 오브제의 수많은 스펙트럼은 공예를 단순히 홀로 존재하는 '사물(Object)'이 아닌 함께하는 그 '무엇(Objects)'과의 공존의 해석을 통한 맥락적 개체(Contextual Objects)로 확장된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예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왔다. 오늘날은 옛것과 새것, 자연물과 인공물, 동양과 서양이 경계 없이 공존하는 시대이며 이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이미지 표상이 고도의 기술과 온라인으로 빠르게 생산되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사물'에 다소 피로를 느끼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현실의 단편을 벗어나 재료의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한 생산의 과정 그리고 자연, 환경, 사람의 맥락 속에 존재하는 공예에 대한 스토리를 담는다.

*이번 도록에 실린 사진은 작가들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여 찍은 사진이며, 작업을 하는 과정의 흔적을 담았다.

허 명 욱
Huh Myoungwook

옻칠 Ottchil,
패브릭 Fabric

시간이 만들어 내는 색
Layers of time

"시간의 레이어가 차곡히 쌓여 해묵은 컬러를 만들었다."

흐르는 시간은 흔적을 남긴다. 빛을 잃고, 탁해지고 벗겨져 허물어지는 것.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은 인간의 삶과도 흡사하다. 사물들은 제 각자의 흔적을 남기며 늙어가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며 만들어 놓은 해묵은 컬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붓을 든다. 시간이 만든 컬러, 그것이 쌓여 만든 물질. 그 물질이 오브제가 되었다. 패브릭도 옻도 힘이 없는 물질이지만 둘이 만나 단단하고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사물이 되었다.
사물은 우리에게 이해되는 방식(方式. Formula)이 있다. 나는 색으로 시간을 버텨 낸 사물과 앞으로 버텨 낼 사물 사이에서 관람객이 사유(思惟, thinking)하길 바란다.

곽 혜 영
Kwak Hyeyoung

자기 Porcelain

비소리를 보다_비오는 날
See the sound of rain_rainy days

"비를 마주한 흙은 빗소리의 순간을 담아낸다."

나의 작업은 비를 만난 흙의 이야기이다.
비 오는 날, 나는 점토판을 준비하고 들리는 빗소리에 점토판을 내어놓는다.
비를 마주한 흙은 빗소리의 순간을 담아낸다. 비와 흙은 서로의 자연 상대자로서 도움하며 자연 형상을 드러내고 나는 그 순간을 작업으로 맞이한다.
나는 재료를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고 그 재료를 다시 자연의 시간에 내어 두며 자연의 사실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방법을 나의 시간 속에 들여온다.

신 명 덕
Shin Myoungduk

나무 Wood

손이 기억하는 것들
Things my hands remember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나무에 손을 댄 건 약간이고 거의 대부분은
세월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나무도 그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 옹이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나는 그 시간의 흔적을 존중하며 그것을 그대로 작품에 담아 나무에 생명력을 담는다. 나의 작업은 솔리드 하고 보이드 한 부분을 이음매 하나 없이 깎는 행위를 반복하여 만든 작업이다. 나무가 만든 세월의 나이테와 깎는 과정에서 생긴 터치가 새로운 나이테로 서로 유기적으로 얽힌다. 자연으로부터 온 감각이 그대로 나무에 투영되어 세월에 대한 시간성을 공간으로 담는다.

신 혜 림
Shin Healim

실 Thread,
가죽 Leather,
타이백 Tyvek,
스텐레스 스틸 Stainless steel

시간의 비가 내린다.
As time goes rain falls

"사소해서 흔한 일상의 것들을 공예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흔한 일상의 재료들을 관찰의 눈으로 바라보며 집적(集積 Accumulation)이라는 '반복성'을 통해 '시간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가죽, 실, 타이백을 재료로 한 연작은 결혼과 육아생활이 수반한 환경 변화의 산물이자, 작업실이 아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작업을 위해 선택된 삶의 수긍이다. 수많은 조각들이 반복적으로 끼워지고 이어 집적한 '시간을 꿴 사물'은 <시간의 비가 내린다>라는 일련의 주제성을 유지하며, 퇴적층의 표현은 시간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제작의 과정이 사유의 시간으로 이어지기 위해 제작 기법은 단순, 반복을 의도한다. '쉼 없이 만들기'를 위한 과정이 삶의 치유이자 나의 존재 확인의 과정이 되기도 한다.

최 근 식
Kunsik

나무 Wood

패싯 / 쉘프넘버
Facet / Shelf No.

"Facet은 눈이 잘 닿는 곳에 두기를 바라고 Shelf No.는 손이 많이 닿는 곳에서 사용되기를 바란다."

스웨덴을 기반으로 가구 작업을 하며 내가 느꼈던 공예의 경계에 대한 나의 두 가지 관점을 선보이려고 한다. 첫 번째 캐비닛 <Facet>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온 전통기술을 익힌 후 그것을 나만의 현대적 표현양식으로 만들어 컨템퍼러리 한 공간과 이어지도록 한 결과물이다. 두 번째 작업 <Shelf No.>는 일상 속의 공예를 염두에 두어 표현양식은 절제되었지만, 미학적 풍만함을 내포한 생활용품으로써의 공예 작업이다. 원재료를 다루고 형태를 다듬는 공예가의 마음가짐이 고급 예술을 소비하는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 각각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미기를 바란다.

한 선 주
Han Sunju

대나무 Bamboo,
실 Yarns(hemp, linen, cotton)

담양의 흔적
Traces of Damyang

"삶의 서식지가 되었던 '담양'으로 부터 온 재료들"

해비타트(Habitat)의 사전적 의미는 서식지로 생물의 개체들이 사는 장소로서 물리적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해비타트(Habitat)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공존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 양상이기도 하고, 시간과 관계되어 축적된 경험의 장소이기도 하다.

나에게 '담양'이라는 장소는 작업의 기초가 되는 재료의 원천이 되었고, 평생을 함께한 직조기와 관계를 맺어 주었다. 삶의 서식지가 되었던 '담양'에서 일상적으로 지켜봐왔던 재료 대나무, 마, 면은 나의 직조기를 통해 또 다른 물성의 탄생을 만든다. 내가 살던 아파트 뒤의 대나무 숲, 삼인산 옆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석양, 메타세쿼이아 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억이 한 곳에 응집되었다.

안나리사 알라스탈로
Annaliisa Alastalo

유리 Glass

어 터치 오브 윈터
A touch of winter

"한국의 겨울 풍경이 유연한 산의 수평선을 따라 흘러간다."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개인의 경험과 삶에 따라 다르다. 외국인인 내 눈에 한국의 자연, 일상의 풍경은 참 매력적이었다. 평소 산책을 하며 마주하는 산의 능선을 보며 한국 전통 도자를 이해했고, 나만의 기호를 통해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유리 작업으로 재현하였다.

기억에 남는 것은 일상을 함께 하는 작은 풍경들이다. 내 삶 속에서 이 진실 된 풍경을 통해 함께 호흡하며 사계절의 진미를 나만의 온도로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겨울의 풍경(Landscape)을 해석하였다.

최정유 · 조규형 (스튜디오 워드)
Choi Jungyou · Cho Kyuhyung (Studio Word)

삼베 Hemp

루즈 그리드
Loose grid

"소재의 물성, 손, 도구가 함께 만든 성긴 격자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무질서해 보이는 자연도 일정한 구조와 규칙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연은 부분과 전체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프랙탈(Fractal)이라고 한다. 인간도 질서와 일관성을 목적으로 가상의 안내선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그리드(Grid)이다. 제도된 그리드와 다르게 자연의 반복 패턴이 만든 그리드에는 시간과 환경이 만드는 변주가 존재하며, 변주가 반복된 그리드에는 여유와 생명력이 넘친다.

우리는 삼베의 짜임을 가장 작은 그리드 유닛으로 사용한다. 삼베의 날실과 씨실로 만들어진 그리드를 손으로 접고, 실로 꿰어 그리드를 확장하고 입체화하였다. 소재의 물성, 손, 도구가 함께 만든 성긴 격자의 멋을 담은 <Loose Grid>를 오브제와 공간으로 완성하였다.

류 연 희
Ryu Yeunhee

금속 Metal

강하거나 부드럽거나
Strong or soft

"재료를 두고 수많은 대화를 한다.
'강하거나 부드럽거나.'"

일상의 삶에 쓰임이 많은 대표 공예 오브제로 주전자를 들 수 있다. 금속이라는 차갑고 단단하지만 가변적인 재료를 통해 사소하지만 친근한 주전자의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 나간다. 재료에 힘을 강하게 가해 만들었다기보다는 마치 가죽을 재단하고 이어붙이는 과정처럼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실제로 가죽을 소재로 금속과의 물성의 화음을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이것은 내가 재료를 대하는 태도에 따른 것인데, 오랜 기간 금속을 다루며 강하지만 부드러운, 차갑지만 따뜻함에 대한 반전의 매력을 작품에 담아왔다.

김 계 옥
Kim Kyeok

동선 Copper Wire,
금박 Gold Leaf

제2의 표면
Second surface

"한 올 한 올 엮인 선들은 어떤 기억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낯설지만 익숙한 공간이다."

한 올 한 올 엮인 선들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들과 같이 겹치고 엉키면서 희미해지고 왜곡되고 사라지고 착시 되어 묘연한 허상이 된다.
<Second surface>는 어떤 기억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낯설지만 익숙한 공간, 마치 의식 속에 현존하지만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부재된 것들의 공간이다. 유연하게 꼬이고 엉킨 선들로 감춰진 형상들은 존재와 부재 사이의 미묘한 겹침으로, 시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착각 속의 풍경을 펼치며 우연적인 공간을 만든다.

김 혜 정
Kim Hyejeong

도자 Ceramic

심피(心皮)
Carpel

"나의 그릇은 마음의 껍질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레 성형을 계속하면서 나는 '그릇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해 왔다. 내가 물레 성형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교차하는 힘의 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레로 만들어진 형태에는 꽃이 피거나 열매가 형성될 때와 같은 힘이 안에서 밖으로 향해 나아가려는 생동감이 내재되어 있다. <Carpel: 심피 心皮>란 종자식물의 잎이 변하여 암술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안에 밑씨를 감싸고 있다가 종자와 함께 성장하여 후에 과실껍질(果皮)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그릇'의 기능과 '껍질'의 역할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모두 안에 있는 것을 감싸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하나의 <경계>일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외부와 소통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껍질'은 '흔적'을 의미하며 종종 우리에게 '기억의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의 그릇 <Carpel:심피 心皮>는 흙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껍질'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CRAFT TERND FAIR 2019
Dec. 12-15th, 2019
Coex Hall A

Main Exhibition
Object,Objects...

Artists
Huh Myoungwook
Kwak Hyeyoung
Shin Myoungduk
Shin Healim
Kunsik
Han Sunju
Annaliisa Alastalo
Choi Jungyou
Cho Kyuhyung
Ryu Yeunhee
Kim Kyeok
Kim Hyejeong

Directed by
Choi Jooyeon

Managed by
Space B-E
YOUNHYUN

Designed by
Space B-E

Photograph by
Kim Hwayoung

Published by
Space B-E

Publication Date
20191212

Catalogue © 2019
B-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B——E
3F Younhyun Bldg. 132-22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Korea

T +82 2 540 6650 / F 51
spacebecoming@gmail.com
www.spacebe.co.kr

Artists

Huh Myoungwook
Kwak Hyeyoung
Shin Myoungduk
Shin Healim
Kunsik
Han Sunju
Annaliisa Alastalo
Choi Jungyou
Cho Kyuhyung
Ryu Yeunhee
Kim Kyeok
Kim Hyejeong